

특별좌담

'6·15 선언' 이후 불교계 역할과 과제

민족 정서 공통분모 찾기 '불교에 열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는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과 노귀남 새시대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조성렬 박사(정치학, 성균관대 정외과 겸사)의 긴급좌담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이후 남북불교교류를 전망했다.

진행 : 정성운 차장
6월 15일, 현대불교 사당방



도각스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처장



노귀남
새시대 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조성렬
성균관대 정외과 겸사

조성렬 :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정상들의 결단 없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 졌어도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최고 정상간에 그리고 정부부처의 장관급, 각 사회, 종교, 문화, 경제 단체의 장 등 책임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가동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에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될 점은 이번 합의가 평화공존에 대한 합의지 통일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재통합은 역사의 흐름

도각 : 공동선언에서 국가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하고 싶다. 남북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 통일안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논의가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다. 두 정상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통일국가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의 단초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 필요 때문이라기보다 민족 재통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남북 정상을 만나게 했고, 거기서 미래지향적인 합의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합의를 잘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정상간의 합의가 아니고 민족 전체에 의해 나온 합의다. 이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노귀남 :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정부라는 보다 큰 틀에서 남북교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북교류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데 회담의 성과가 있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통일이다. 말하자면 사회 문화적 통합이다. 실질적인 통일과정은 바로 사회 문화적 통합인데, 체제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체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보다 사회·문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텅다는 게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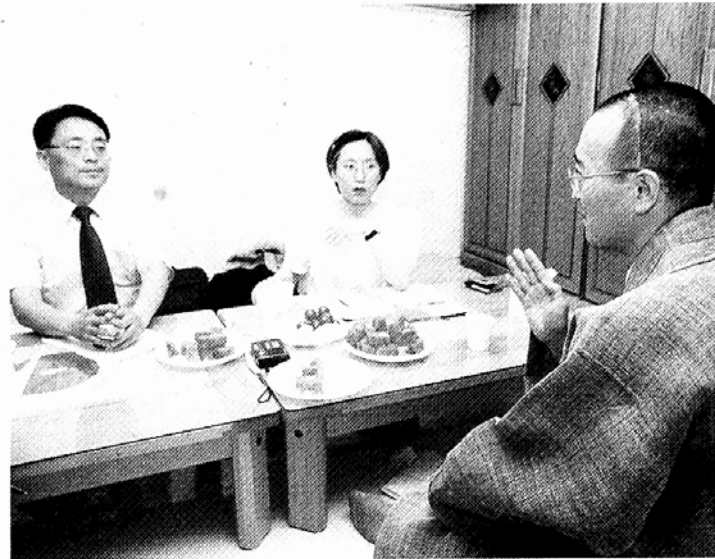
김정일 쇼크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각 : 가장 큰 쇼크라면 김정일의 활

달한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가 냉전의식에 갇혀 북측에 대한 선입관이 강했다. 김정일 발언 가운데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다고 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인상이 레드콤플렉스를 벗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도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인간적인 감정이 활달하고 화술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노귀남 : 몇 대학에서 회담 기간 중 인공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깊이 생각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런 행동이 들렸다가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장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해 줘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다. 심부름 행동은 있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성렬 : 김정일 쇼크가 있었다면, 북



좌담회 참석자들은 남남간, 남북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불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불교교류 창구 단일화 필요

'통일오계' 등 행동원칙 만들어야

상대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확장'

한주민들은 김대중 쇼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속 지속시켜나가고 제도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일 쇼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쇼크는 그동안 엄청난 벽이 있었기에 상징적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독교 세력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쇼크를 현실로 착각해서 대세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김정일 쇼크를 어떻게 잘 관리해 갈 것인가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도각 : 인공기 게양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그런 데서도 불교적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고, 보살의 현신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대결구도에

서 민족의 공존·공생의 관계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중적 참여 끌어내자

조성렬 : 다양한 불교통일단체들이 있는데 교류 논의 본격화되면 공식적인 기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여러 단체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공식화·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류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성숙되면 불교의 대표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구들의 경쟁이 소모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연구작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원호의 화쟁사상 같은 사상적 측면인데, 이는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지 실천적인 면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대중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를테면 '통일오계' 같은 행동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도각 : 통일의 이념적 틀을 불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큰 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불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무소유, 비폭력, 인간의 주체의 식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자주를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주체의 식으로, 평화를 비폭력으로, 민족대단결을 화합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은가. 휴전선에 있는 살상무기 철거운동 등도 불교의 비폭력사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다.

노귀남 : 대북교류 공식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정책차원, 창구역할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상 어떻게 바라보고 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의미에서 그렇다. 다양한 통일운동단체들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주도권 차원의 창구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힘이 결집될 수 있는 민주적 기구가 필요하다.

북한 조분련의 위상이 낮아지고 해서 우리가 배제한다면 결국 북한의 창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북한 내의 조분련의 위상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불교교류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통일로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차원의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불교계에서 해야 한다.

도각 :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 지원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작은 단위에 서라도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의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낮은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 문제들도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성렬 : 학자의 이론은 열 명을, 정치가의 연설은 백 명을 감동시킨다면, 종교인의 설법은 천 명을 감동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문화재 복원, 학술교류 등 비종교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포교를 앞세우기보다는 민족통일성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의 통일운동을 공동선언에 나온 것처럼 환경, 문화, 보건 등으로 광의의 통일운동으로 넓혀야 한다.

교류 대상을 꼭 조선불교도연맹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회과학원이나 아·태위원회와의 교류도 필요하다.

마음의 벽부터 없애야

노귀남 : 남남간, 남북간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일의 궁극은 민족문화통일적인 사회통합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춘향전을 비교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북한의 춘향전은 무슨 춘향전이라고 할 정도로 계급적 요소가 들어가고 관소리적 요소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본(異本)이 많듯,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문화가 지닌 특성이자, 이질적인 것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 불교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통일불교화 담 같은 통일교육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형태는 지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소그룹 세미나의 활성화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에서 말씀한 실천덕목들을 교재로 만들 수도 있다.

도각 : 그동안 고착화된 남북교류에서 불교를 든 것은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향후 남북 당국자, 제단체간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면 종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동질성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점에서 불교의 역할이 새로운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불교는 체제나 이념의 이질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 지면사정으로 '선과 21세기' '묵어' 쉽니다.



길월사 영탑(靈塔)



수도권지역의 유일한 가족영탑(靈塔)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지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길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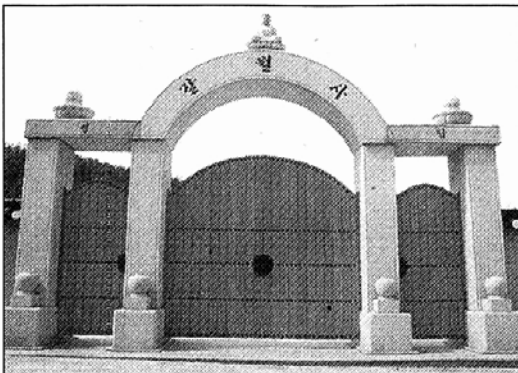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평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조성된 영탑



▶ 정문

길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용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용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길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접수안내

- ▶ 구비서류: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본
화장증명서 1통(남골봉안시 제출)
호적등본 1통, 신청서 1통
- ▶ 자 격: 본 길월사영탑 관리규정에 동의하시는 분
- ▶ 관 리 비: 매년 100,000원
- ▶ 문 의: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자신들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